브라질 현대작가들이 추구한 자국 문화의 정체성 탐구 방향과 논리

박 원 복*

1. 서 론

브라질문화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먼저 한 국가의 문화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문화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류학적인 관점이라든가 사회학적인 관점 등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위의 광범위한 정의는 다소 축소, 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같은 고전적인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되 한 국가의 문화가 갖는 특성에 집중키로 한다.

한 국가의 문화가 어떤 한정된 지정학적 공간에 사는, 즉 어떤 일정한 영토(국가)내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이 서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유·무형의 재산을 통틀어 일컫는다고 가정할 때 그 문화의 정체성(identity)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문화를 창출하는 최소단위로서의 각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질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인식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 타인이란

*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강사.

같은 집단의 구성원일 수도 있으며 타 집단 또는 다른 지역의 개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각 구성원들이 한 계층이나 집단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적 단위로 확대될 때 이들도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며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구체적 또는 추상적 산물을 그 국가 또는 그 민족의 문화라고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 국가의 문화란 동질성을 가진 그 국가의 민족이, 이질성을 가진 타민족과의 상호 비교 및 교류하는 과정에서 형성해 가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가의 문화가 이른바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간의 활발한 종적, 횡적, 공시적, 통시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회내의 각 계층간에도 이 같은 상호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질성을 가진 외국의 문화요소들과 자체내의 문화요소들, 예를 들면 의류, 사상, 음식, 문학을 비롯한 각 예술 분야 사이에도 이 같은 지속적인 교류가 필수적인 것으로써 그 이유는 한 국가의 문화란 이질적인 타 문화에 의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되고 또 그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조주의 학자들이 보는 이른 바 문화의 구조론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문화는 그 발전 과정의 성격상, 자체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생산하기도 하여 이 같은 상호 교류를 의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1)]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국가의 문화를 평할 때 그 주안점은 바로 각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작은 문화적 요소들 간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며 그 같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문화의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 가를 논하기에 앞

1) Ju. M. Lotman, B.A. Uspenskij, V.V. Ivanov, V.N. Toporov, A.M. Pjatigorskij "Theses on the semiotic study of cultures (as applied to Slavic Texts)", in ***The Tell-tale sign, a survey of semiotics of Sebeok***, Thomas A. Bloomington. The Peter de Riddem Press, 1975. p. 57-58.

서, 우리 인간의 문화란 다름 아닌 언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우리는 문화 형성의 최소단위인 각 구성원간의 또는 계층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며 또 문화의 생산자인 우리 각 개인의 의식 세계도 사실은 모두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나아가 각 개인의 정체성도 바로 그런 가운데 형성, 확립되기 때문이다[2].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한 국가의 문화의 정체성 탐구는 바로 그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과학으로서의 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20세기 브라질 문학, 특히, 詩를 통해 동 국가 문화의 정체성이 문인들 사이에 어떻게 인식되어왔으며 또 어떤 방법을 통해 탐구되어 왔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낭만주의 시대의 정체성 인식 - 회화적 향토주의 regionalismo pictoresco

흔히 브라질을 인종박물관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얼핏 브라질문화의 정체성 *identity*이 부재하다든가 또는 특성이 없다는 오해할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의 형성과정에 필수적인, 생산자들간의 상호 교류 *interação e interrelação*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인종 박물관이라는 지칭은 브라질 문화가 지닌 가장 큰 특징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

2) 이런 의미에서 비하일 바흐친은, 말(palavra)이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Mikhail Bakhtin. ***Marxismo e Filosofia da Linguagem***, São Paulo Hucitec, 1981, pp. 35-38 참조)

어 *língua e linguagem*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혼재하여 이들간의 상호 교류가 그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과의 오랜 공존으로 지극히 이질적인 외부문화가 침투할 때도 능동적으로 그것을 흡수, 융합하는 힘을 배양시키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브라질 문화의 적응력과 동화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만큼 브라질 문화가 외부 문화에 친밀감을 느낌과 동시에 친밀감을 주는 비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으며 그것이야말로 브라질 문화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특성이 브라질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토론되면서 브라질 문화의 *identity*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20세기에 들어서였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브라질 문학에 있어서의 정체성 인식과 확립 과정은 인디아니즘 *indianismo*이 충만하던 낭만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했듯 자국 언어의 분석과 이해를 통한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안또니우 깡지두 *Antônio Cândido*가 갈파했듯이 일종의 경제적 후진성과 높은 문맹으로 인한 두터운 독자층이 없었던 탓에 일종의 식민지 종주국의 문화 양식에 바탕을 둔 회화적 향토주의 *regionalismo pictoresco*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3] 즉, 낭만주의 시대의 정체성 인식과 확립은 브라질의 이국적인 자연에 대한 찬미와 이에 기초한 환상적, 자아도치적 애국심의 발현이었으며 그것도 일반 국민의 의식, 보다 엄밀히 말해 폭넓은 일반 독자층에 기초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아닌 일부 엘리트들의 선각적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의 문학적 토양도 식민지 종주국의

3) Antônio Cândido. "Literatura e Subdesenvolvimento", in ***América Latina em sua Literatura***, São Paulo Perspectiva, 1979, p. 360

문학적 패턴과 관점에 기반을 둔 유럽적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말이다 (예, 까스뜨루 알비스 *Castro Alves*, 뻬루 바스 지 까밍냐의 서한 *Carta de Pêro Vaz de Caminha* 등).

그러나 이 같은 낭만주의의 애국적 네이티비즘 *nativismo*도 19세기말에 있었던 까누두스난(亂)을 전후하여 산업화와 노예해방 그리고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자국에 대한 현실이 새로이 조명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자국이 이국적, 환상적 자연을 지닌 자유의 나라라는 허황된 인식은 유럽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낙후된 사회로, 사회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만연한 사회로 추락,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얼마 후에 정치적으로는 큰 변화를 몰고 왔으나 유럽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의존과 종속은 19세기를 넘어 금세기 초에 와서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분석, 비판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100주년을 맞은 1920년대,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 1922년 일명 현대예술주간 *Semana de Arte Moderna*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2.2 모더니즘시대의 정체성 인식 - 사실적 향토주의 *realismo penetrante*

바로 브라질 모더니즘의 분수령이었던 현대예술주간 *Semana de Arte Moderna*이 낭만주의 시대와는 달리 본격적인 브라질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국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유럽적 시각이 아닌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국문화를 분석,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구현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자국 언어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그 결과를 문학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나라의 언어는 곧 그 나라의 역사요 문화가 숨쉬고 있는 보금자리이자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하에 브라질의 모더니스트들이 자국의 언어와 자국에게 합당한 문화적 패턴과 시각에 근거하여 자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은, 첫째 해묵은 유럽 지향적인 과거 패턴과의 단절, 둘째, 자국 사회의 다양한 민족적 구성에 대한 이해, 셋째, 풍부한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유산에 대한 통찰, 그리고 넷째, 자국 원주민 인디오들의 야만적(?)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종주국의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교화의 대상이기도 했던, 원주민 인디오들의 식인풍습 *Antropofagismo*이었다. 이와 동시에 말라르메를 비롯한 서구 작가들이 주창했듯이 문학, 특히 시(詩)는 언어의 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 브라질 모더니즘 작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시적 언어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경향은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 브라질 문학의 큰 흐름을 이루었던 북동부 지방 작가 중심의 향토주의 *Regionalismo*와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꽃피운 구체주의 운동 *Concretismo*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1) 다양성과 표현기법

한 나라의 사회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사회가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각기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들이 어떤 특정한 지정학적 공간에서 오랜 공존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문화의 동화력과 친화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그 문화의 공간 확대와 더불어 개방화를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중남미 전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4] 특히 브라질의 경우 애초의 원주민 인디오와, 사탕수수 농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 19세기와 20세

4) "쿠바인들의 일상언어가 요동할 때면 그 속에는 여러 언어(langue)들이 표출되며 그 중심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Quando o falar cubano se agita, há várias línguas que se expõem e o centro não está em parte alguma*", 아말리우 삐네이루 *Amálio Pinheiro*의 ***Aquém da Identidade e da Oposição: formas na cultura mestiça***, (Piracicaba, Unimep, 1994)에 인용된 사르뒤 Sarduy의 표현임.

기초 활기를 띤 커피 산업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인 등이 유입되어 인종의 다양성에 따른 문화적 양상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다.[5]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잉태된 이질적인 문화와의 친화력과 동화력은 브라질만이 지니는 독창적 문화를 만들어 내었고(예, 카니발) 그 독창적인 문화의 힘은 이질적 문화를 획일적으로 동질화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동질화하는 잠재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혼합 문화를 브라질 문화의 뿌리로 인식한 모더니즘 작가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구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종주국의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나는 일환으로써 자국의 국민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으며[6] 그

---

5) 직접적인 이민은 없었으나 브라질과 기타 중남미국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될 당시 이베리아반도는 아랍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에 이 문화의 유입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다. 실제로 이베리아 반도가 아랍인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1492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무렵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한 중남미 각국에도 아랍권의 영향이 가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6) "Evocação do Recife", in ***Manuel Bandeira: poesia completa e prosa***. Rio de Janeiro: Nova Agular, 1985, p 212-213.

"인생은 신문이나 책을 통해 내게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인생은 브라질국민의 입으로부터, 그들의 틀린 언어로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은 언어는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포르투갈 포어의 문법을
흉내내는 반면
바로 그들은
브라질 포어를 구수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A vida não me chegava pelos jornais nem pelos livros
Vinha da boca do povo na língua errada do povo
Língua certa do povo
Porque ele é que fala gostoso o português do Brasil
Ao passo que nós
O que fazemos
É macaquear
A sintaxe lusíada"

방법은 유럽의 기법을 따랐으나 보다 브라질적인 색채가 나는 소재와 언어의 특질을 발굴,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서구 유럽 문화와의 근본적 차별성을 부각하고 나아가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자국 문화의 완충성과 다양성을 고양하였으며 이 같은 시도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브라질만의 독특한 문학사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안또니우 깡지두 *Antônio Cândido*가 말했듯이 새로운 문예사조가 탄생할 때마다 자국의 앞선 문예사조의 기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럽의 신 기법을 모방하는 악순환을 단절시켰다는 말로써 1922년 모더니즘이후의 브라질 문예사조가 1922년에 마련된 토양 위에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 일명 45년 세대 "*Geração de 45*", 주엉 까브랄 지 멜루 네뚜 *João Cabral de Melo Neto*, 까를루스 드루몽 지 안드라지 *Carlos Drummond de Andrade*, 1950-60년대의 구체주의 운동 *Concretismo*, 1980년대 후반의 視覺詩 *Poesia Visual* ...)[7]

2) 신 인디아니즘: 식인주의 문학론 - *"Um novo indianismo- antropofagismo"*

낭만주의시대에 있어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은 흔히 광활한 이국적 자연을 무대로 한 원주민 인디오의 영웅적 일화나 전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힘든 생활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대변되었다고 해도

7) 물론 1922년 모더니즘 세대들과 45년 세대 *geração de 45* 그리고 구체주의 시인들도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의 문예 기법을 수입,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법을 과거처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현실인식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와 시적 언어의 개척에 큰 공헌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통신과 교통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일방적인 문화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차라리 각 국가들이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O que é o virtual"***. Pierre Lévy, (trad. Paulo Neves) São Paulo: Editora 34, 1996. ***"Being Digital"***: Nicholas Negroponte 저, 1995)의 "Introduction"부분을 참조할 것, 두 번째 책의 포어 번역본은 ***A Vida Digital*** (trad. Sérgio Tellaroli).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1995).

과언이 아니다 (예, 주제 지 알렝까르 *José de Alencar*의 이라쎄마 *Iracema*, 흑인노예선 *O Negreiro* 등). 그러나 이 같은 소재의 선정은 앞서 언급한, 자국 언어의 분석과 이해를 통한 자국 문화의 정체성 탐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1922년 모더니즘 작가들이 구현한 것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된다.[8] 즉, 모더니즘 작가들, 특히 리더였던 오스바우 지 안드라지 *Oswald de Andrade*가 자신의 '식인주의 문학론 - *Antropofagismo*'을 언급한 것을 분석해보면 낭만주의의 유토피아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빈부차이가 극명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브라질이 갖고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인종, 풍요로운 자연, 천연자원, 음식, 춤 등)을 詩(시)라는 백지 공간에 투사하여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브라질적 언어로 구성된 시의 역동적 구조 속에서 서로 동화하고 융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즉, 그러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identity*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9]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작가들이 갖고

---

8) 물론 질라 번드가 언급한 것처럼 문학적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동원되는 여러 기능중 desacralization과 sacralization 관점에서 볼 때 브라질 낭만주의의 그같은 경향은 이해되지만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 문화의 토양인 그 나라의 언어적 정체성과 철저히 결합되지 못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추구는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 Zilá Bernd.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org, translated by Amaryll Chanady), London. Unive. of Minnessota Press, 1994, p. 86-87)

9) Oswald de Andrade, "Manifesto da Poesia Pau-Brasil", in Do Pau-Brasil à Antropofagia e às Utopias, Obras Completas de Oswald de Andrade,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1970, p. 5.

"詩(시)는 사실 속에 존재한다. 빈민촌의 초원위에 새프런과 오크르로 만들어진 누추한 집들, 그것은 심미적 사실이다. 리우 카니발은 우리 민족의 종교 행사이다. 빠우 브라질, 바그너도 보따포구의 선율 앞에 사라지고 만다. 야만적인 것, 우리의 것. 풍부한 인종 구성, 풍요로운 자연. 광물. 음식. 바따빠 음식, 금 그리고 춤."

"A poesia existe nos fatos. Os casebres de açafrão e de ocre nos verdes da Favela, sob o azul cabralino, são fatos estéticos. O Carnaval no Rio é o acontecimento religioso da raça. Pau-Brasil. Wagner submerge ante os

있던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이요, 구현 방법이었던 것이다.[10]

그런데 그들은 브라질 문화의 이 같은 친화력과 동화력의 사상적 배경을 바로 원주민 인디오들의 식인풍습에서 찾았다. 즉, 브라질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민족 포르투갈인들과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때때로 그들을 집어삼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 모더니즘 작가들은 바로 이 같은 풍습의 이면에서 타문화에 대한 브라질 문화의 흡수력과 융화력을 간파, 이를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3) 브라질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 - *"do nacional para o internacional"*

"오로지 한가지만의 투쟁 - 길을 찾기 위한 투쟁.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輸入(수입)한 詩(시). 그리고 빠우-브라질[11] 詩(시), 輸出(수출)을 위한 詩(시)."[12] 이 말은 현대예술주간의 주동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오스바우 지 안드라지 *Oswald de Andrade*가 자신의 시론을 담은 빠우-브라질 시 선언문 *Manifesto da Poesia Pau-Brasil*에서 자신의 향후 창작활동 목표를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의 이면에는 유럽, 특히 당시

---

cordões de Botafogo. Bárbaro e nosso. A formação étnica rica. Riqueza vegetal. O minério. A cozinha. O vatapá, o ouro e a dança."

10) 여기서 요소란 linguagem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유리 티니아노프의 설명으로는 série라는 개념으로 대변된다. 특히 유리 티니아노프의 시리즈론을 보면 오스월드 지 안드라지의 의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문학적 시리즈의 체계란 무엇보다 문학적 시리즈가 내포하고있는 기능들의 체계이며 문학적 시리즈는 여타 다른 시리즈들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 *O sistema da série literária é antes de tudo o sistema das funções da série literária que se encontra em relação ininterrupta com as outras séries"*

11) Pau-Brasil은 1500년 포르투갈인들이 브라질 해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서양연안을 따라 폭넓게 자라고 있던 붉은 색의 염료나무를 일컫는 말이었다. 바로 이 나무의 이름에서 오늘날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동 작가가 자신의 시에 이 이름을 붙인 것 역시 브라질적인 색채를 탐구하고 구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Uma única luta - a luta pelo caminho. Dividamos. Poesia de importação. E a Poesia Pau-Brasil, de exportação."

문인들이 동경하고 모방하던 유럽풍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화적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써, 테크닉의 모방을 벗어나자는 얘기라기 보다는 보다 브라질적인 테마와 소재 그리고 브라질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예 창작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브라질에 이식되어 만연하던 유럽식 카톨릭적 사고방식에서 우선 탈피하자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어 소개하는 그의 유명한 시(詩) 두 편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Humor
Amor ("Amor")

그리고

O transatlântico mesclado
Dlendlena e esguicha luz
Postretuta e famias sacolejam ("Bonde")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의 공통점은 우선 서로 의미가 다른, 대비되는, 두 개의 단어(유머 *humor* - 사랑 *amor*, 창녀 *postretuta* - 가족 *famias*)를 함께 위치시킴으로써 브라질인들의 의식속에 자리잡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유럽적.기독교적 관념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랑이란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유머러스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지하고 솔직해야 하는데 그 같은 의식은 낙천적이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는 브라질인의 정신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있다. 또 운율이 같은 두 단어를 선정(amor와 humor)함으로써 발음의 유사성과 의미의 유사성 *anagrama*을 교묘히 이용, 마치 amor라는 단어 자체가 humor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음 시에서도 Postretuta (원래는 prostituta)와 famias(원래는 famílias)를 근접 배치함으로써 역시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비

꼬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단어를 브라질인들이 하는 발음대로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그 같은 의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transatlantic 전차에 탄 혼혈 승객들 mesclado, 그 가운데 가족과 창녀의 경계가 모호하게 뒤섞인 *sacolejam* 문화적 상황은 앞서 언급한 쎄베로 싸르뒤 *Severo Sarduy*의 말과 의미상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13].

사실 이와 같이 유럽-카톨릭적 사고 방식을 비판하면서 브라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는 타문화를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해야한다는 모더니스트들의 사고 뒤편에는 유럽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브라질의 자연과 문화의 특질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문인들이 그러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오스바우 지 안드라지 *Oswald de Andrade*가 식인주의 문학론 *Antropofagismo*를 주창했을 때 그는 유럽에서 루쏘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브라질은 (최소한 원주민 인디오들은) 이미 유럽인들이 동경하던 그 자연 속에서 인생을 만끽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럽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모방과 종속이 얼마나 그릇되고 얼마나 非(비) 브라질적인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으며 나아가 브라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탐구, 즉, 브라질문화의 정체성 탐구와 확립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2.3 1950-1960년대 전위詩에서의 정체성 탐구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시, 즉 "Amor"와 "Bonde"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국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시라는 백지공간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자국문화의 실체를 강도 높게 파헤쳤던 1922년 세대들의 노력은 일명 "45

13) 아울러 1922년 세대의 이같은 문화적 인식을 이어받은 50-60년대의 구체주의 운동이 일시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비슷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을 공유하던 중남미 각국으로 전파되어 큰 반향을 불러모았던 것도 1922년 세대들이 꿈꾸었던 "사고 패턴의 수출"이 national적인 것의 탐구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년 세대"에 들어서면서 다소 침체하는 듯 하였으나 1950년대 하반기에 이르자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극단적인 양상을 띄게된다. 즉, 주셀리누 꾸비체끼 Jucelino Kubitchek정권이 들어서면서 브라질 사회는 "50년에 할 일을 5년에 이룩한다 Cinquenta anos em cinco anos "라는 신 정부의 슬로건이 말하듯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게되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언제까지 서구 문명의 변두리에만 머물 수 없다는 자각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50년대 초반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건설이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브라질 중앙고원의 허허벌판에 오늘날의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를 건설하면서 그같은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같은 분위기 쇄신에 힘입어 보다 브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 현대화의 뒤편에 서있던 사람들을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시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운동(예, 열대문화운동 Tropicalismo")이 전개되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당시 각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느 정도 당대의 문화를 즐기고 흡수할 수 있는 사회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가능했었다.[14]

결국 1950-60년대의 전위시들은 22년 세대들이 주창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한 자국언어에 대한 실험성을 보다 심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대중들과 보다 가까이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강한 정치성과 사회성을 띄었다. 한 예로 데씨우 삐그나따리의 시 "Coca-Cola"(1957년)를 들어보자.

beba coca cola
babe cola
beba coca
babe cola caco
caco
cola
cloaca

14) Ortiz, Renato. ***A Moderna Tradição Brasileira: Cultura Brazileira e Indústria Cultural***, São Paulo: Brasiliense, 1989, 2 ed. pp. 38-110

우선 이 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음료인 코카콜라("coca cola")를 선전("beba - 마셔라")하는 광고 문구 같은 형식을 시에 도입함으로써 그 당시 확산 일로에 있던 대중문화의 총아인 메스컴의 특성을 십분 활용, 상품의 압축된 메시지 전달 및 시각적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둘째, "beba" - "babe", "coca" - "cola" - "caco"(파편 또는 잡동산이)-"cloaca" 등, 시의 흐름 속에 이 단어들의 음향적 요소가 서로 엉키면서 마치 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그러한 과정에서 꼬까 꼴라(브라질 현지 발음)가 잡동산이, 파편을 의미하는 caco(까꾸)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인 미국의 대표 음료를 비난하고 평가절하는 효과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점, 그리고 넷째,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듯 첫 문장 "콜라를 마시세요"라는 의미가 음성적-시각적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의성어에 불과한 "cloaca" (발음을 옮기면 *끌로아까*)로 추락한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해석 외에도 이 시를 긍정적으로 보아 코카콜라의 광고 효과를 시적으로 그려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인의 詩世界를 보면 시인은 분명 미국상품, 더 나아가 미국문화와 미국경제의 브라질 지배에 따른 폐해(예로써 이 시의 이면에는 꼬까 *coca*와 비슷한 발음을 지닌 꼬까이나 *cocaína* - 마약인 코카인의 뜻이 내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와 그러한 지배에 대한 강한 반발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시 일반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대중매체의 음향적-시각적 효과를 시의 공간에서 구현한 것이다.

아롤두 지 깡뿌스 *Haroldo de Campos*, 아우구스뚜 지 깡뿌스 *Augusto de Campos* 그리고 데씨우 삐그나따리 *Décio Pignatari*를 중심으로 한 초기 전위시 운동에 이어 탄생된 신 구체주의운동 *Neoconcretismo*에서는 앞서 언급한 외래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넘어 브라질 현실에 대한 성찰로 다시 돌아오며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써 독자가 직접 詩作에 참가하는 행위예술도 아울

러 시도된다(예, 페헤이라 굴라르 *Ferreira Gullar*의 "Poema enterrado", "Poema-livro"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할애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 결 론

1922년의 현대예술주간운동은 30-50년대를 거치면서 소설에서는 주제 린스 두 헤구 *José Lins do Rego*, 조르지 아마두 *Jorge Amado*, 그라씰리아누 하무스 *Graciliano Ramos* 등이 중심이 된 사실적 향토주의 *Regionalismo penetrante*와, 시 분야에서는 시집 "반 송시反訟詩 *Antiode*"의 작가이자 "꽃은 꽃이라는 어휘이다 - Flor é a palavra flor"라고 주장한 주엉 까브랄 지 멜루 네뚜 *João Cabral de Melo Neto*)와 시집 "민중의 장미 *Rosa do Povo*"로 유명한 까를루스 드루몽 지 안드라지 *Carlos Drummond de Andrade*를 통해 자국의 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22년 모더니스트들의 핵심 논리인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라는 점을 심화시키면서 보다 강한 실험정신으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해 나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1950년대 후반 아롤두 지 깡뿌스 *Haroldo de Campos*, 아우구스뚜 지 깡뿌스 *Augusto de Campos*, 데씨우 빼구나따리 *Décio Pignatari*를 중심으로 한 구체주의운동 *Concretismo*과 페헤이라 굴라르 *Ferreira Gullar*를 중심으로 한 新(신) 구체주의운동 *Neoconcretismo*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15]

---

15)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 시대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브라질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던 시기로서, 1960년 지금의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과 TV, Radio, 출판, 대학 등이 대거 설립됨으로써 독자층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명 "45년 세대"들의 일부 과거 회귀적 (예, 신 고답주의 *neo-parnasianismo*, 신 상징주의 *neo-simbolismo*)인 일면에 염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브라질의 아방가르문학인 구체주의 운동의 주창자이기도한 아롤두 지 깡뿌스는 동 운동의 이론적 지침서였던 "구체시를 위한 지침서 *Plano-piloto para a poesia concreta*"에서 분명, 동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유럽적 패턴에서 벗어나 브라질적인 표현양식의 구축을 선언한, 1922년 현대예술주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6].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위문학의 강한 실험성을 바탕으로 한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제반요소("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 '*verbivocovisual*'")를 최후의 순간까지 탐구하고 실험하였고 나아가 그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탐구와 그 표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 같은 경향은 그 후의 많은 아류 시론에 정신적-이론적 지주로 자리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브라질 문학의 큰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자국의 현실과 문화적 특성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국민의 일상 언어를 해부하고 그 속에 잠재된 자국 문화의 역동적인 정체성 *identity*를 문학이라는 또 다른 역동적 구조 속에 옮겨 표출시킴으로써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표현기법은 유럽식을 따랐어도 자국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를 유럽적 시각이 아닌 자국민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것은 자국문화의 정체성 탐구와 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기록한 것이며 이는 20세기 들어 문화적 · 정신적 탈식민화를 부르짖는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바로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브라질문학의 전위문학으로 일컬어지는 구체주의운동 *Concretismo*이 탄생한 것이다.

16) Campos, Harolo de 외. "Plano-piloto para poesia concreta", in ***Teoria da Poesia Concreta***, São Paulo· Brasiliense, 1987, pp. 156-158.

4. 참고문헌

Bakhtin, Michail (Volochinov). *Marxismo e Filosofia da Linguagem.* São Paulo: Hucitec, 1981

Benjamin, Walter. *A Modernidade e os Modernos,* Rio de Janeiro: Tempo Brasileiro, 1975

Campos, Haroldo de. *A Arte no Horizonte do Provável.* São Paulo: Perspectiva, 1997

_____, *Teoria da Poesia Concreta,* São Paulo: Brasiliense, 1979

Franchetti, Paulo. *Alguns Aspectos da Teoria da Poesia Concreta,* Campinas: Editora da Unicamp, 1989

Ju. M. Lotman, B.A. Uspenskij, V.V. Ivanov, V.N. Toporov, A.M. Pjatigorskij. "Theses on the semiotic study of cultures (as applied to Slavic Texts)", in *The Tell-tale sign, a survey of semiotics of Sebeok,* Thomas A. Bloomington: The Peter de Riddem Press, 1975

Moreno, Cesar Fernandez (coor.). *América Latina em sua Literatura,* São Paulo:

Perspectiva, 1979

Mota, Carlos Guilherme.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 São Paulo: Ática, 1977

Ortiz, Renato. *A Moderna Tradição Brasileira: Cultura Brazileira e Indústria Cultural,* São Paulo: Brasiliense, 1989, 2 ed.

Paz, Octavio. *O Arco e a Lira.* Rio de Janeiro: Nova Fronteira, 1982

Tinianov, Iuri. *O Problema da Linguagem Poética.* 2 vols.. Rio de Janeiro: Tempo Brasileiro, 1975

Lotman, Iuri. *A Estrutura do Texto Artistico.* Lisboa: Editorial Estampa, 1978